

01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으로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승객과의 의사소통 문제만 해결하다면,
청각장애인도 택시운행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추진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대중교통과 031-590-2298

개선배경



- 청각장애인의 신체능력은 비장애인들과 동일하지만 잘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장애인들보다 취업이 어려우며, 특히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업에 취업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
- 현행법 상 청각장애인도 제1종 대형면허 · 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함에도, 승객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택시회사에서 청각장애인을 고용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움.

개선내용



개선전

- 청각장애인은 잘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



개선후

- 청각장애인도 택시운행이 가능하도록 '고요한 택시' 어플리케이션 개발, 승객과 기사 상호간 의사소통 가능, 시민들의 편견 및 인식전환, 일자리 창출 기대

- 2018. 9월 남양주시는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택시 운수종사자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계획 수립
- 2018.12월 보조금 지원절차 등 세부 업무 처리지침 마련
- 2018.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내 택시 운송사업자 3사, 코엑터스(주)와 고요한 택시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 체결
- 2019. 1월 프로그램 본격 시행
 - 많은 항의전화와 시민들의 편견이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읍·면·동, 반사회보 등을 통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우려를 해소

기대효과



-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 후 청각장애인 7명 고용, 맞춤형 취업설명회를 통해 2명 추가 고용, 총 9명이 고용됨.
- 프로그램 도입으로 청각장애인의 직업선택 기회 확대 및 택시회사의 구인난 해소, 불필요한 대화가 없는 특별한 서비스 제공 효과 발생
- 청각장애인에 대한 시민들의 편견 및 인식전환 기대

- ☑ 코엑터스(주)개발한 어플리케이션 (GOYOHAN)이 설치된 태블릿을 운전기사석과 승객석에 설치, 상호간 의사소통 가능
- ☑ 3가지 소통방식을 제공(음성, 태블릿 키보드, 터치패드), 목적지 전달 및 주행 중 메시지 전달 가능



2018년 12월 21일 (금)

종합

국민일보

조광한 남양주시장 “청각장애인 안정된 직업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청각장애인 운전하는 '고요한택시' 운영 업무협약...지방자치단체 최초청각장애인 운전하는 '고요한택시' 운영 업무협약...지방자치단체 최초



남양주시와 지역내 택시업체는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지원' 업무협약을 지역내 택시업체들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내 택시회사인 금성운수(합), 영훈운수(주), 신안운수(주)를 비롯해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코엑터스(주)가 참여했다.

고요한택시는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택시로,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GOYOHAN이 설치된 태블릿을 이용해 승객이 목적지를 입력하면 기사가 확인해 운행하는 방식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8월부터 지역내 일반택시 3개 업체와 도입을 추진했으며, 승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택시 부착용 스티커 디자인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고요한택시 프로그램에 대한 운전시설·장비 확충에 필요한 비용지원, 대외 홍보지원, 청각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사용 교육 등을 협조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택시분야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지원 사업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일하는 성취감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택시 서비스 구현과 더불어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편견 해소, 복지증진 등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요한 택시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금성운수(합)에 청각장애인 2명이 입사해 수습운행을 시작했고, 현재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9명의 청각장애인이 영훈운수(주), 신안운수(주) 등 3개 택시회사에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한 택시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청각장애인 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 지원으로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 작성자 경기도 남양주시 대중교통과 노현호 031-590-2298

신체적인 장애로 택시 운송사업 현장에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청각장애인에게 첨단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택시기사 취업이라는 일자리 창출의 과정을 함께 한 사업담당자로서 큰 뿌듯함을 느낍니다.

지난해 8월 관내 법인택시 신안운수 관리자가 대학생창업동아리 코엑터스가 개발한 ‘고요한택시’ 어플리케이션을 접한 후 이를 도입하여 청각장애인을 택시기사로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우리시에서는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법인 택시운수종사자 구인난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청각장애인 운수종사자와 승객간의 소통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운용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9월에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필요한 사업예산을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남양주시는 청각장애인 고용 택시업체 3사 및 고요한택시 어플리케이션 개발사인 코엑터주(주)가 함께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요한택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정착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걸림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처음 접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표시하는 민원이 시청에 많이 접수되었고, 이를 설득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업 도입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모든 실과소 및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반상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 및 궁금증 해소를 위한 홍보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업에 보다 많은 청각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시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취업설명회에 협조를 받아 ‘청각장애인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좋은 기획의도가 담긴 사업이라 EBS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등 알리면 알릴수록 시민들의 장애에 대한 편견 및 구인난도 해소하며 일자리도 창출되는 일석삼조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취업설명회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힘입어 지난 7월까지 청각장애인 택시기사 9명이 관내에서 택시기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채용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택시업계에서도 고용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어 시에서는 고요한택시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고요한택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데에는 청각장애인의 채용 및 안정적인 직장 적응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관내 택시운수업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 초기 홍보부족으로 어려웠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주신 읍면동사무소 직원들과 블로그 및 SNS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업을 널리 알려주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고요한택시 사업은 2분기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요한택시 사업이 확대되어 많은 청각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택시로 사랑받길 바랍니다.